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9일 화요일 (음 6월 7일) 제232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글로벌 화학기업, 군산에 증설투자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생산
삼양이노켄, 전북도와 협약
자유무역지역에 710억 투자
30여명 신규 일자리 창출
군산경제에 새 활력 기대



8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삼양이노켄(주) 증설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장, 윤동욱 군산부시장, 박은정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장, 박순철 삼양사 대표이사, 정연일 삼양이노켄 대표이사 등이 협약체결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게 될 글로벌 화학외투기업인 삼양이노켄(주)이 군산자유무역지역에 710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전북도는 8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윤동욱 군산부시장, 박순철 삼양사 대표이사, 정연일 삼양이노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양이노켄(주)과 증설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삼양이노켄(주)의 군산 공장 라인 증설 지원과 투자 및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동반 성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삼양이노켄(주)은 기존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삼양이노켄(주) 생산 공장에 710억원을 투자해 2021년 8월까지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여명의 지역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이 기대된다.

삼양이노켄은 삼양홀딩스가 2009년 설립하여, 2012년 4월에 상업생산에 돌입, 연간 16만톤 BPA(비스페놀-A)를 생산하고 있다.

2009년 1700억원의 투자를 통해 BPA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2019년 신제품인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원

료인 이소소르비드(ISOSORBIDE)를 생산계획이며, BPA 사업경쟁력 강화 및 공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한 사업 확대에 지속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기존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대체품으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소소르비드의 경우 기존 플라스틱보다 우수한 물성(투명성 및 표면 경도 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소소르비드는 삼양사가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이다.

이소소르비드의 원재료는 옥수수이며, 이소소르비드를 원료를 만든 플라스틱은 기존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에 비해 분해성, 무독성 등 친환경적인 특성이 뛰어나다.

이소소르비드 생산을 위해서는 생물 자원에서 전분을 추출해 가공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화학적 처리 기술이 모두 요구된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모바일 기기와 TV 등 전자제품의 외장재, 스마트폰의 액정필름, 자동차 대시보드, 식품용기, 친환경 건축자재 등의 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삼양이노켄의 증설 투자는 전북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

도와 군산시는 삼양이노켄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일 삼양이노켄 대표이사는 "생산품이 이소소르비드는 기존 석유화학물질 플라스틱에 비해 분해성, 무독성 등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시대에 적절한 제품이다"면서, 국내외 많은 투자검토지역을 제외하고 군산공장을 투자지역으로 선정할 이유에 대해 "향후 수출 등 지리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군산이 최적의 투자 지역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증설협약을 통해 삼양이노켄과 전북도·군산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일 삼양이노켄 대표이사는 "생산품이 이소소르비드는 기존 석유화학물질 플라스틱에 비해 분해성, 무독성 등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시대에 적절한 제품이다"면서, 국내외 많은 투자검토지역을 제외하고 군산공장을 투자지역으로 선정할 이유에 대해 "향후 수출 등 지리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군산이 최적의 투자 지역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증설협약을 통해 삼양이노켄과 전북도·군산시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타 대상 선정

전북도는 지난 5일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016~2020)에 중점추진에 반영된 삼례IC에서 김제IC를 잇는 18.3km 노선에 대해 총사업비 2315억

원을 들여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전북도는 새만금·혁신도시 개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수송 처리능력 제고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과 차로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에 대해서 전북연구원과 공조하여 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위원회를 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기재부에 신청했고, 전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기재부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강조하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이끌어 냈다.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가 확장되면 새만금 개발사업 가속화, 전주·완주 혁신도시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물류 및 교통량 급증, 교통병목 현상이 크게 해소되는 등 후방 연쇄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한민희 신임 전북도 비서실장 임명

도, 인사 단행

전북도는 8일, 한민희 공보관을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한민희 신임 비서실장은 1970년 10월 19일생으로 전주 해성고, 원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이어, 10여년을 전북중앙신문 정치부 기자 등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 뒤로 전주시 대외협력 담당관, 전북도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한민희 신임 비서실장

올해부터 생활SOC 집중

전주시, 덕진보건소·복합혁신센터 등에 투자

전주시는 지역경제의 활력과 획기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대규모 생활SOC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덕진보건소 신축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키즈복합센터) 건립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덕진 복합문화공간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총 149억여원을 투입해 덕진구 명주골짜기 인근(우아동3가 747-80)에 지상 4층, 연면적 6961㎡ 규모로 덕진보건소를 신축할 예정이다.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덕진구 주민들은 멀리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 시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예방접종과 진료, 건강증진서비스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177억원을 투입해 전북혁신도시(장동 1068-2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5000~5500㎡ 규모로 복합혁신센터(키즈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어린이 놀이 및 체험 공간 △부부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 교양·휴식 공간 △청소년 동아리 공간 △전시·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비 39억5000만 원을 확보해 현재 사전절차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할 방침으로, 그간 별도의 전용공간이 없었던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용상영관이 건립된다.

시는 또 올해 추경예산 확보를 거쳐 옛 덕진지구대 건물에 3억7000만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덕진 복합문화공간 시설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덕진광장 대rob면 위 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의 청년작가의 공동작업공간, 전시·판매공간, 주민공간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시는 시민들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금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객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9개 하천·재해정비 사업에 총 1421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시는 스포츠킴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등 체육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을 다목적·다기능을 갖춘 복합 스포츠 타운(World Sports City)으로 만들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